

예술은 얼어붙은 삶을 깨우는 자극제

예술의 쓸모

강은진 지음



고갱은 '예술은 표절 아니면 혁명이다'고 했다. 예술이 지닌 본질적 측면인 창조성을 극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창조란 모방의 토대 위에서 싹튼다. 원 텍스트를 자신만의 관점, 다시 말해 창조적 혁신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술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한다. 일년이면 미술관을 찾은 이들이 수백만 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예술은 '먼 거리'에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예술 외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친다.

그렇다면 예술을 어떻게 접해야 할까? 강은진 아트 큐레이터는 '예술사나 작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술가의 삶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무겁고 딱딱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펴낸 '예술의 쓸모'는 개인적인 욕망부터 세상을 바꾼 혁신까지 예술에 대한 저자의 미적 사고를 담고 있다. '시대를 읽고 기회를 창조하는 32가지 통찰'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쓸모 있는 예술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심미안', '카타르시스', '감각의 확장', '욕망의 이해', '창조성', '통찰'이다.

'심미안'은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다. 피렌체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르네상스인이 고대 그리스인의 후예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에는 오직 하나의 조화롭고 완전한 배열이 있다. 단 하나의 미가 있는 것이다. 미는 모든 부분의 완벽한 조화이므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전체가 손상된다."

20세기 초반 활동했던 호퍼는 단순한 주제로 사람들을 위로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위로를 얻는다. 그림에는 지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는 쓸쓸함이 배어 있다. 빈 센트 반 고흐도 내면의 격렬한 감정을 강렬한 터치로 표현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보는 듯한 감정 이입을 한다.

예술은 우리에게 '감각의 확장'을 허락한다. 저자는 영화 '뮤지엄 아워스'를 매개로 자세히 볼 때 다가오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 속 주인공은 빈 미술사 박물관을 지키는 노인이다. 그가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왜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야 하는지, 예술작품이 왜 쓸모가 있는지 알려준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감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이다. 범박하게 말하면 예술의 역사는 곧 욕망의 역사다. 언뜻 세속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욕망은 그 인식 범위가 확장된다. '영혼 전체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예술적 완성을 추구하는' 양상이 이를 증명한다.

이밖에도 저자는 예술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고, 예술이 가르쳐준 자세 등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특유의 사유를 풀어낸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예술은 얼어붙은 삶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라고.



예술가와 작품에는 저마다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데, 이는 훗날 무명의 예술가를 유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작 '우유를 따르는 여인'.

(다산초당 제공)

캔은 '보편적 아름다움을 좇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욕망할 수 있게' 된 현대 예술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래의 미술은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파격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담아 낼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은근고지신의 산물인 '창조성', 본질을 파악하고 새 시각을 제시하는 능력인 '통찰' 또한 예술을 모티브로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저자는 예술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고, 예술이 가르쳐준 자세 등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특유의 사유를 풀어낸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예술은 얼어붙은 삶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라고.

(다산초당·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경쾌한 사색자, 개= '개를 키우는 행복의 집사' 이자 철학자인 저자 마르크 알리자르트가 개를 키우며, 아니 개와 함께 하며 이르게 된 새로운 지적·정신적 감각을 신화와 여러 문헌 속 이야기와 엮어 들려준다. 우리 인류의 진정한 비밀을 알고 싶을지도 모르는 개에 대한 여러 갈래의 모색 끝에 '개를 갖는다는 것은 천사를 갖는 것이다'라는 데까지 이른다. (이상북스·1만4000원)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습관적으로 써오던 말투를 점검하는 것부터 오십에는 빼버리면 좋은 말,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힘들여하는 4050세대들에게 어떤 태도로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꼰대'로 분류되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상대가 되지 않았는지, 오십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갖게 해준다. (유영·1만5000원)



▲갈라진 마음들=저자인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단 문제를 사람들의 경험, 인식, 감정 등의 층위에서 분석하면서, '분단적 마음'이 현 상태를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분단체제가 한반도 주민에게 남긴 영향을 일상과 정동의 영역에서 분석하며, '분단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창바·1만8000원)

▲1분 과학 읽기 : 건강·의료편= '재미 있는 과학 읽을거리'를 표방하며 아시아 경제 김중화 기사가 온라인판에 연재한 '과학을 읽다'를 책으로 엮었다. 1부 '바쁜 일상에서 몸을 지키는 1분 건강 읽기', 2부 '팬데믹 시대에 삶을 지키는 1분 의료 읽기'로 나누어 건강한 삶을 위해 상식으로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을 정보를, 우리 몸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지식들을 골라 담았다. (생각비행·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모두를 위한 예술가 키스 해링의 낙사=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와 함께 미국의 3대 팝 아티스트로 꼽히는 키스 해링은 전시, 디자인, 광고,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에게 사랑받는 예술가다. 그림 작가 조시 코크런은 키스 해링이 서른한 살의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그가 살아 온 행보를 최대한 실제와 흡사하게 구현했다. (스픈북·1만5000원)

양보할 줄 모르고, 서로 자기만 옳다고 싸우던 힘찬이와 당찬이가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내용이다. (꿈터·1만1000원)

▲아홉 살 인생 공부=아홉 살이 된 쌍둥이 남매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양속 남매', '바보 천재 만복', '별난 속제', '힘찬이 냄새, 당찬이 냄새' 등 4편이 담겼으며, 쌍둥이로 태어나 서로

▲사자는 사료를 먹지 않아=반려동물 물을 키우고 싶은 클레망스는 부모님이 사료와 배설물 등의 문제 때문에 키울 수 없다고 반대하자 사자를 집으로 데려온다. 사자는 사료를 챙겨 주지 않아도 되고, 사료 값 걱정도 없고, 배설물을 따로 치울 필요도 없기 때문. 프랑스의 작가인 앙드레 부샤르는 정육점에서, 길가에서 사자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조금 끔찍하지만 유쾌하게 그렸다. (작가정신·1만3000원)

위기의 시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말하다

초격차-리더의 질문

권오현 지음



넘볼 수 없는 차이 또는 절대 경쟁력을 일컫는 말이 있다. 바로 '초격차'. 요즘과 같은 위기의 시대 초격차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니 그보다 초격차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초격차는 비단 경영 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사는 이들 앞에 놓인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으로 입사해 최고 경영자까지 오른 권오현 전 회장. 그의 33년 경영 전략을 담은 '초격차'는 지난 2018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리고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신간 '초격차-리더의 질문'을 들고 돌아왔다. 지난 2018년 당시 저자는 언론과 경영계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나 강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2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전문가들, 스타트업 창업가, 전문 경영인 등과 같은 중소기업 리더들과 만나며 다양한 고민을 나눴다.

이런 책은 기업 경영자와 조직의 리더들이 궁급해하는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기

준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을 향해 맹목한 해답을 풀어낸다.

책은 '리더', '혁신', '문화' 등 모두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더들과의 만남을 매개로 모두 32개의 고민과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다.

1장 '리더'에서는 '효율성 극대화'와 '관리'라는 옛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고를 따끔하게 지적한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 덕목으로 치부되던 80-90년대 시대에는 전문 관리자 유형의 리더가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리더는 "모든 판단 기준을 미래에 맞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리더의 '지식(능력)'과 '지

혜(그릇)'에 대한 저자의 관점은 오늘날 추구해야 할 방향을 짚어준다.

2장 '혁신'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리더는 혁신을 이끌어가는 장본인이지만 혼자서 수행할 수 없다. 제도 와 인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저자는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는 물론 결정적 순간에 관한 에피소드 등을 토대로 이야기한다.

3장 '문화'에서는 도전, 창조, 협력을 키워드로 설명한다. 지속 가능한 혁신은 좋은 기업 문화에서 탄생하며 리더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다른 종과 달리 인간만이 도전하고 창조하며 협력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일구어냈다는 의미다.

저자는 이런 시대일수록 리더십을 기반으로 초격차에 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뱀앤퍼커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